

KINU Insight

2019
No.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KINU Insight 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 참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 | |
|--|----|
| I. 문제 제기 | 1 |
| II. 우리 국가제일주의 등장 배경과 의미 | 2 |
| III. 국가상징의 재문맥화와 ‘우리 국가제일주의’ | 6 |
| IV.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 표상 | 10 |
| 가. 표상의 기본 의미와 ‘국기(國旗)’ 중심의 맥락 | 10 |
| 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국가상징과 ‘우리 국가제일주의’ | 13 |
| 다.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의 국기 표상과 애국주의 | 18 |
| V. ‘우리 국가제일주의’ 표상의 함의와 전망 | 22 |
| 참고문헌 | 27 |

I 문제 제기

-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세와 환경의 변화에도 국가 구성원 전체가 신념으로 간직할 이념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강조함.
 -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갈 애국의 열망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 북한이 강조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핵보유 국가의 위상을 바탕으로 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김정일 시대와 구별되는 김정은 시대의 독자성과 연관되어 있음.
 - 김정일 시대부터 사용해온 ‘강성국가’, ‘사회주의 문명국’ 구호와 다른 김정은 시대의 특징을 담은 새로운 명명이 필요
 - 북한 창건 시기에 김일성이 국호, 국기, 국장, 국가 등의 국가상징 만들기에 관여하며 새로운 정치권력의 등장을 알린 것과 유사
-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구체화하고 국가상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동원함.
 - 국가상징의 강조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공연이나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의 재평가도 이와 관련
 - 가요 <우리의 국기>는 2019년 1월 1일 『로동신문』에 김정은의 친필 사인과 함께 수록,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구현한 ‘명곡’으로 평가
- 이 글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이념의 구체화를 보여줄 문화예술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함의를 분석하고자 함.
 - 국가상징의 재귀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어떻게 연동하는지 분석
 - 김정일 시대의 ‘우리민족제일주의’와 김정은 시대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의미 차이와 전략적 양상 비교

II 우리 국가제일주의 등장 배경과 의미

- 핵보유 전략국가 호명과 ‘우리 국가제일주의’ 첫 등장
 - 2016년 제7차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전략적 지위’를 강조함에 따라, 핵보유국 위상과 지위를 담을 새로운 용어가 필요해짐.
 - 여기에 더해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을 포괄할 수 있는 사상적 틀이 요구된 것으로 보임.
 - 2017년 신형 ICBM ‘화성-15’형의 발사 성공 이후, 전략적 지위 상승을 주장하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처음으로 등장함.
 - 『로동신문』 2017년 11월 30일 1면 사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에서 “국가핵무력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위업”의 실현으로 북한의 “전략적지위”가 더 높이 올라섰다고 평가하면서 핵강국, 핵보유국의 지위 강조
 - 동일 지면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의 서사시로 력력히 아로새겨야 한다.”는 구절로 등장
 -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미국본토에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할수 있는 전략국가”로 스스로를 천명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선언적 구호로 등장, 이후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의 맥락으로 이념화 됨.
 - ‘전략적 결단’을 내린 김정은의 치적을 칭송하고, 외부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끈 자긍심을 표현

- 정치강국과 군사강국을 실현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경제강국 실현을 통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나아가는 국가의 이미지를 새롭게 강조할 필요성 대두
- 이를 위해서 애국주의적 감정과 사상을 체계화하며 수정, 보완

□ ‘우리 국가제일주의’ 용어의 체계화 과정

- 2018년에는 주체사상의 일부 발전된 논리로 체계화 되었으며, 이어 김정일애국주의를 연계하며 김정은이 제시한 사상으로 구체화됨.
 -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계승하면서도 이전 시대와 차별되는 김정은 시대의 통치담론으로 형성될 가능성 내포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이론적·사상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부터 진행¹⁾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시련 속에서도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위업을 전진시킬 근본 원천으로 규정됨.
 - 『로동신문』 2018년 11월 26일 사설 “주체조선의 공민된 긍지드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에서 “오늘 우리의 혁명정세는 결코 평온하지 않다”고 전제
 -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위해 “전대미문의 시련속에서도 순간의 주저나 동요도 없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올수 있는 근본원천”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 호명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외부와의 교류·협력 가능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등장함.
 - ‘참다운 애국가’로 김정은을 호명하며 ‘혁명과 건설을 최고령도자동지식대로’ 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제일주의와 애국주의를 연계

1) 주체사상의 원리를 해설하는 기사로 『조선여성』 2018년 2월호에 “우리 국가제일주의,” 6월호에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7월호에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요구” 등이 수록되었음. 2018년 6월에 발행된 『철학, 사회정치학 연구』 2018년 2호와 3호에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논문으로 서성일 박사 부교수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 리현숙의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원천,” 장동국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등 3편이 게재됨.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전략적 지위와 국력에 상응하는 투쟁의 기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3세대 권력세습의 정당화, 자립 경제와 자위 국방의 내용을 포함함.
 - 『로동신문』 2019년 1월 8일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에서 2019년을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국면”으로 설정, “세계가 공인하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에 상응하면서도 우리 인민의 강용한 기상과 지향에 부합되는 투쟁의 기치”로 ‘우리 국가제일주의’ 규정
 - 본질적 내용은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 있으며,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승리와 특출한 성과를 이룩해놓은 인민만이 당당히 가질수 있는 승고한 사상감정”으로 정의
 - “국가정치체제가 편파없이 계승”되어 세계가 3세대 권력세습을 인정한다고 정당화
 -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고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가제일주의가 “전면적인 국가부흥시대”에 맞는 이념으로 강조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기초는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로 규정됨.
 - 『로동신문』 2019년 1월 20일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에 의하면 “자주의 강국,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솟구쳐오를수 있게 한 원동력이며 끝없이 강성번영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보검”으로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를 사상정신적 기초로 규정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과업은 당의 명령에 충실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 과학기술과 문화 발전, 국력과 위상의 제고 등으로 제시됨.
 - 『로동신문』 2019년 1월 27일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에 의하면,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것”,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 “과학기술과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것”, “문화분야에서 나라의 국력과 위상을 떨쳐나가는것”을 국가제일주의의 과업으로 제시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개념적 구체화를 위해 동원되는 국가상징
 - 2018년부터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사상적으로 다듬어지면서, 제재와 압박 봉쇄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이 된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성’을 담은 콘텐츠가 필요해짐.
 - 2018년 상·중반기에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개념적 기초와 사상적 체계화에 주력
 - 2018년 하반기에는 이념의 구체적 선전 양태에 주목하여 국가상징 등장
 - 언론은 국가상징을 계몽·선전하고, 문화예술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구체적으로 표상함.
 - 2018년 건국 70주년 기념으로 9.9절에 공연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정치 의례의 과시(display)이자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구체적 표상임.
 - 국가상징은 문화예술 작품의 콘텐츠로 구성되며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역할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김정은의 리더십과 북한이라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문화적 자원으로 정교하게 과시하는 “권력의 연출(dramaturgy of power)”²⁾

2) 캐서린 벨, 류성민 역, 『의례의 이해』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1989), p. 259.

III 국가상징의 재문맥화와 ‘우리 국가제일주의’

□ 국가상징의 귀환과 재문맥화

- 참매와 목란꽃이 국조와 국화이지만 이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김정음이 지적한 다음부터 국가상징 교양 강화 시작함.
 - “우리의 가사나 시들에는 대체로 온갖 산새들이 우짖는다거나 산새들이 날아옴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노래 《조국찬가》에서는 3절 첫 소절을 《구름우엔 참매 날고 목란꽃 핀 이 강산》이라고 하여 우리 나라의 국조와 국화에 대하여 다 밝혀놓았다”는 김정음의 일화와 관련³⁾
- 『로동신문』은 2018년 11월 11일부터 매주 일요일에 국가상징 기사를 연재하면서 국가상징을 맥락화 함.
 -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선전하고 이를 인민대중이 신념화 하도록 견인하기 위해 국가상징들을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
- 2018년 11월부터 국수(國樹) ‘소나무’를 시작으로 국견(國犬) 풍산개, 국조(國鳥) 참매, 국화(國花) 목란꽃 기사를 차례로 수록함.⁴⁾
 - 2019년 들어서는 국호(國號), 국장(國章), 국가(國歌), 국어(國語) 등을 추가하며 국가상징을 『로동신문』 박스 기사로 고정하여 연재⁵⁾
 - 대중 선전과 계몽을 위한 기사 연재는 현재 진행형

3) 장선화, “공화국창건과 더불어 힘있게 울려 퍼진 조국찬가”, 『조선예술』, 2018.9, p. 18.

4) ① ‘민족의 역센 기상’의 국수 소나무는 2018년 11월 11일과 18일에 연재 수록

② ‘민족의 자랑’인 국견 풍산개는 2018년 11월 25일과 12월 2일에 연재 수록

③ ‘민족의 슬기’와 ‘용맹한 기상’의 국조 참매는 2018년 12월 9일에 수록

④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의 국화 목란꽃은 2018년 12월 23일에 수록

5) “우리의 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2019.1.23.; “밝고 아름다우면서도 뜻이 깊은 국장,” 『로동신문』, 2019.1.26.; “송고한 조국애를 깊이 심어주는 《애국가》,” 『로동신문』, 2019.2.2.; “세상에 자랑높은 우리의 국어,” 『로동신문』, 2019.2.4.;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기상을 담은 국화-목란꽃,” 『로동신문』, 2019.2.7.

- 각각의 국가상징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함축하고 있으며, 현재의 대북제재 위기나 국제적 고립을 극복해 국위를 높이려는 북한의 국가적 목표와 가치를 창출하도록 매개함.

□ 국수 소나무 재문맥화를 통해 본 국가상징의 의미 구조

- 국가상징은 역사적 유래, 주요 산지, 문화생산물, 민족적 성격과의 관련성 등을 설명하는 구조로 개념화 됨.
 - 국가상징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된 것은 국수 소나무
 - “사시장철 푸름을 잃지 않고 그 어떤 풍파에도 꺾떡없이 역세계 자라는 소나무에는 우리 민족의 기상, 우리 국가의 강인성이 그대로 비껴있습니다.”⁶⁾라는 김정은의 ‘말’이 국수 소나무 의미의 근간
- ‘대동강문화’의 발생초기부터 소나무가 민족과 함께 했다는 소나무의 역사적 유래, 유명 산지, 문화적 생산물을 비롯해 민족적 성격과 국가의 상징성, 창창한 미래가 소나무에 어떻게 표상되는지 설명함.
 - 국가상징에 대한 설명 방식은 이와 거의 동일한 구조
 - ‘푸른 소나무’는 북한의 문화적 관습에서 오랫동안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의 혁명정신과 불굴의 기상을 의미
 - 국수 ‘소나무’는 김형직의 스토리 대신 전통적인 소나무 의미에 ‘조선 인민의 기개와 역센 의지’, ‘백절불굴’, ‘절대불변성’, ‘영웅적 정신력’을 덧붙여 국가상징의 의미만으로 재규정
- 국가상징은 영토성·역사성·민족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김일성·김정일과 관련된 혁명적 이야기를 후면에 배치함.

6) “민족의 역센 기상이 비긴 조선의 국수 소나무(1)” 『로동신문』, 2018.11.11.

- 김일성·김정일을 제외한 혁명가계는 접합을 최소화하여 국가상징이 가지고 있는 객관성을 높이고자 함.

□ 국가상징 교양사업의 중요성 대두

- 국수 소나무 이후 국가상징은 교양사업으로 강조되었으며, 국수 외의 국가상징 기사를 『로동신문』에 연재함.
 - 『로동신문』 2018년 11월 18일 기사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사업의 중요성”에 의하면,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 국가상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김정은의 지시가 근거
 - 국가상징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공식적 표징이며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함양하기 때문에 교양 사업으로 중요하다고 강조
- 국가상징에는 해당 국가의 형태·정치적인 의지·역사적 전통과 민족적 특성·자연지리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고 규정함.
 - 국호·국장·국기·국가에는 “우리 공화국의 성격과 사명, 발전전망과 위력”등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국어·국화·국수·국견에는 “우리 민족의 우수하고 아름다운 민족적전통”이 담겨있다고 구분
 - “자기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는 감정은 국가상징을 대하는 립장과 태도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고 하면서 애국심의 구체성으로 국가상징 강조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토대로서의 국가상징

- 국가상징이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은 집단 구성원에게 충성심과 애국심을 발양하는 매개가 되기 때문임.
 - 국가상징의 계몽 사업이 표적으로 삼는 일차 수용자는 집단 내부의 구성원
 - 상식 차원인 국가상징의 의미와 내용을 재귀적으로 소환하여 계몽함으로써 국가의 의미와 국가에 대한 인민의 윤리적 태도와 헌신을 높이려는 의도

- 국가상징은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의 공식성을 구가하는 전략으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창출과 관련되어 있음.
 - 국가상징은 외교 의례를 염두에 둔 포석
 - 그동안 쌓은 부정적 의미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재구축하려는 의도와 관련

IV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 표상

가. 표상의 기본 의미와 '국기(國旗)' 중심의 맥락

□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 대상으로 만드는 표상

○ 표상(表象)이란 추상적, 사상적 의미를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거나 스토리 전개를 통해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시도임.

- 표상이란⁷⁾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세상에 현전하도록 하는 것으로, 재현(representation)과 동일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의미를 문화예술 작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대중에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미 전달 추진

□ 일상에서 구체화되는 '국기'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 국가상징 가운데 '국기'를 가장 중요한 국가상징으로 강조, 문화예술에서 집중적으로 표상함.

- 2019년 1월 1일에 『로동신문』에 수록된 <우리의 국기> 노래는 '국기' 상징을 통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예술적 표상의 일종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예술영화 <우리집 이야기>에서 국기는 중요 표상으로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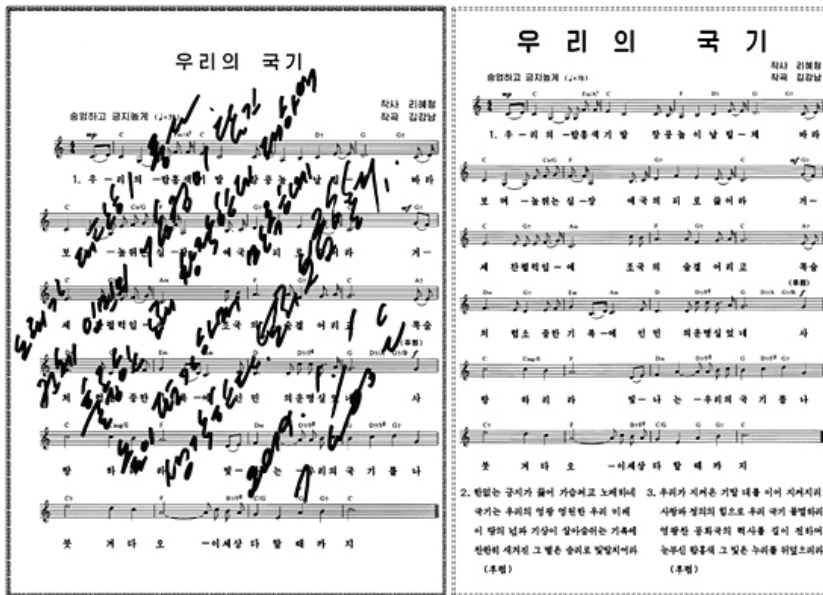
7)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표상'은 단어의 일반적 의미, 문학적 의미, 심리적 의미, 철학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음.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 |
|--------|---|
| 일반적 의미 | - 본을 받을 만한 대상 - 대표로 삼을 만큼 상징적인 것 |
| 문학적 의미 | - 심상(心象)과 같은 말 -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 |
| 심리적 의미 | - 외부 세계의 대상을 마음속에 나타내는 것 |
| 철학적 의미 | -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에 의하여 의식에 나타나는 바깥세상의 상(象) |

<https://open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focus_name=query&query=%ED%91%9C%EC%83%81>(검색일: 2019.4.1.)

- <우리의 국기> 노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훌륭하게 반영한 성과작으로 평가되며, ‘인민의 애국충정’을 높이 발양시키는 교양 도구의 역할로 강조됨.
- 2019년 1월 1일 『로동신문』 3면에 “노래가 대단히 좋다. 전체 인민의 감정이 담긴 훌륭한 노래 창작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만족하게 생각한다. 널리 보급할 것”이라는 김정은의 친필이 들어간 악보 <우리의 국기> 수록

<그림 1> 『로동신문』 2019.1.1. 3면



- “어느 단위에서나 이 노래를 게시한 커다란 직관판들이 세워져있는것을 볼수 있고 사람들의 우렁찬 노래소리를 들을수 있”으며, “이 노래를 부르며 일터마다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힘껏 일한다는 보도를 통해서 대중 보급과 선전 정도를 파악8)

- 일상에서 불리는 <우리의 국기> 노래는 국기의 가치와 의미를 광범위하게 전파하여 국기와 공동체를 연속성에 놓음.

8) “조선인민의 새 애창곡 《우리의 국기》,” 『조선중앙통신』, 2019.1.12.

- 대중보급이 비자발적 형식일지라도 노래를 부르는 동시성의 경험은 공동체와 국가의 연대를 승인

□ 국가상징 중에서 ‘국기’ 상징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

- 국가상징들 가운데서도 특히 ‘국기’가 전면에서 나서는 이유는 국가 정체성, 국제관계, 국력 과시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국기는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표
 - 국기는 민족 내부보다는 국제관계에서 필요한 국가의 공식 표징
 - 국제 스포츠 우승자 시상식 때 게양되는 국기는 세계와 경쟁하는 표지, 세계와 경쟁하여 우승한 증거, 국력 과시의 복합적 의미
- 국기를 통해 분출하는 숭고한 감정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김일성, 김정일조선제일주의”로 확장되며, 인민 대중은 국기를 중심으로 ‘힘찬 진군’을 하여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함.⁹⁾
- 국기의 강조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 구축의 필요성을 의미하며, 국기는 집단의 체제 이탈을 막고 결속을 강화하는 매개가 됨.
-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시장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으며, 서구 문화와 첨단 문물을 경험한 새 세대들에게 과거와 같은 민족주의 이념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과 결부
 - 공동체의 통합성이 위협받을 때 공연 장르와 같은 미학적·인지적 양식들이 위반의 전염을 저지하는 ‘교정’ 기능을 수행하여 공동체를 재통합¹⁰⁾

9)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높이 최후승리 앞당겨오리,” 『로동신문』, 2019.1.16.

10) 빅터 터너, 김익두·이기우 역, 『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민속원, 2014), pp. 178~185.

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국가상징과 ‘우리 국가제일주의’

□ 건국 70주년 기념 기획 공연물

- 북한의 국경절인 9.9절을 기념하여 공연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북한 건국의 정치적 합법성을 연출하고, 국가의 목표와 가치를 이미지로 재현하는 대형 이벤트이자 국가 기획의 공연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로동신문』은 2018년 8월 15일 기사에서 ‘공화국 창건 70돌’을 기념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¹¹⁾이 <아리랑>과 같은 규모로 진행된다고 보도됨.
 - “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새롭고 독특”하고 “현대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도입” 한다고 예고¹²⁾
- 민족사의 수난을 극복하여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아리랑>이 “민족적 색채가 강한”¹³⁾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 <빛나는 조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자긍심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우리 공화국의 건국과 수호, 기적과 번영의 발전행로”를 빛낸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업적”과 “주체조선의 영광찬란한 력사”를 감명깊게 보여주고,¹⁴⁾
 - “작품전체가 당정책교과서라고 불리울만큼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혁명정신으로 일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식 사회주의는 력사의 정의이고 과학이라는 철리”를 밝힌 “예술적 선언” 등으로 평가¹⁵⁾
 - 2018년 9월 9일부터 10월 10일 당창건기념일까지 공연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더 연장하여 11월 4일까지 공연

11)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구체적 내용은 『조선중앙TV』의 요약 보도(<<https://youtu.be/sBDNUGAEYys>>) (검색일: 2019.2.28.)와 『로동신문』 보도를 통해 정리할 예정임. 유튜브에서 화면 캡처한 경우는 출처 생략함.

12) “9월의 명절을 장식하게 될 신비로운 황홀경,” 『로동신문』, 2018.8.15.

13) 전영선, “북한의 아리랑 축제와 민족예술의 가능성 모색,” 『한국문학과 예술』 6집 (2010), p. 165.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돏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성대히 진행,” 『로동신문』, 2018.9.10.

15) “수령이 위대하여 인민이 위대하고 조국도 빛난다,” 『로동신문』, 2018.11.2.

□ 새로운 의례 절차 도입과 국가상징의 등장

- 기존의 대형 공연물이었던 <아리랑>이 '아리랑' 노래로 개막되었다면, <빛나는 조국>은 애국가 연주와 국기 게양으로 시작됨.
 - 5월1일경기장에서 대규모 경축행사가 진행되는 경우 봉화대에 불을 지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 “국기게양의식을 하는것으로 하여야 공화국창건 70돐을 경축하는 체육문화행사의 의의와 멋이 더 살아날 것”이고, “공화국기를 게양하면서 《애국가》를 주악하면 전체 관람자들이 일어서서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공화국기를 바라보게 될것”¹⁶⁾이라는 김정은의 지적에 따라 애국가와 국기게양이 공식 의례로 재정립
- ‘국조(國鳥)’ 참매는 애국가와 국기 외에 <빛나는 조국>에 등장하는 국가상징 중 하나임.
 - “백수십대의 무인기들의 비행조종프로그램을 보란듯이 우리 식으로 완성하여 세인을 놀래”¹⁷⁾우며 형상된 국조 ‘참매’는 김정은 체제가 주력하는 과학기술의 구현으로 구가

□ 애국가의 기념 의례 귀환의 배경과 의미

- 애국가의 예식 귀환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예식규정을 만들라는 김정은의 지시와 관련됨.
 - 『조선예술』 2018년 12호에 실린 글 “뭇소 제정해주신 행사때의 레식곡”에 의하면, 2012년 가을 어느 날 김정은이 인민군지휘성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의 레식규정”을 만들 것을 지시
 - 국기게양식 때에는 <애국가>를, 당기게양식 때에는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를, 최고사령관기를 게양할 때에는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고정할 것을 지시했으며, “앞으로 행사들에서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노래 《애국가》를 주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래 《빛나는 조국》을 주악”하도록 지시

16) “시대의 기념비적대결작과 더불어 불멸할 이야기,” 『로동신문』, 2018.10.31.

17) “일심단결의 위대한 힘이 빛나는 조국을 받들어올렸다,” 『로동신문』, 2018.11.10.

- 모두 “공화국을 상징하는 노래”로서 강조

○ 〈애국가〉와 〈빛나는 조국〉이 국가 상징 노래가 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음.

- 첫째, 국가 건립 초기에 창작되어 국가 상징의 기틀을 잡았다는 전통 계승의 의미

- 둘째, 그동안 국가 기념의례에 사용해 왔던 김일성·김정일 송가 대신 애국가를 귀환시킴으로써 국가 상징의 공식성 복원

○ 기념의례의 형식 변화는 전통 계승과 국가성 복원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애국가 제창은 공동체에게 동시성을 부여하여 ‘동조(同調, unisonance)’¹⁸⁾ 상황을 연출하며, 동시대적 공동체(communal body)를 창출하여 국가가 육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함.

□ 〈빛나는 조국〉의 최첨단 기술의 시각화와 ‘국기’ 중심의 스펙터클 이미지 창조

○ 애국가 연주와 국기 게양, 드론의 ‘빛나는 조국’ 레터링(lettering) 쇼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면모를 시각적으로 표시함.

○ 〈빛나는 조국〉 공연은 드론, 레이저, 미디어 아트 등 최신 기술을 동원한 새로운 형식의 시각화(visualization)로 스펙터클 효과를 창출함.

- 시각화는 ‘눈’이라는 신체기관을 통해 감각하고 인지하도록 구성된 일련의 것들로서, 지각심상(mental image) 중 하나인 시각 이미지와 연계

- 스펙터클은 “영화를 볼 때 관객의 시각을 자극하는 화려하고 매혹적인 볼거리”라는

18) “아무리 가사가 진부하고 곡이 평범해도 국가를 부르는 데서 동시성을 경험할 수 있다. 바로 그 순간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곡조에 맞추어 같은 구절을 소리내어 부른다. 그 이미지는 화음(unisonance)이다. 라마르세예즈(Marseillaise, 프랑스 국가), 춤추는 마틸다(Waltzing Matilda,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민가요), 인도네시아의 라야(Indonesian Raya)를 부르는 것은 화합의 기회, 상상의 공동체가 메아리치며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서울: 나남출판, 2002), p. 188.

의미에서 출발

- 스펙터클은 영화라는 장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미관성과 장관성을 가리키며, 공상적이며 신기하고 경이로운 화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것(과도 관련¹⁹⁾)

〈그림 2〉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빛나는 조국’ 제호를 연출하는 드론들



출처: 『조선중앙TV』의 요약 보도(<<https://youtu.be/sBDNUgAEYys>> (검색일: 2019.2.28.).

- 〈빛나는 조국〉의 스펙터클 효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애국가 연주와 거대한 국기 게양 자체는 시각적 장관 효과
 - 둘째, 국기게양 후에 밤하늘에 떠오른 ‘빛나는 조국’ 글자는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스펙터클의 효과를 통해 문명강국을 재현
 - 셋째, 공연 초반의 국가 연주와 국기게양, 드론의 레터링 쇼는 공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일적으로 연대하는 역할
- 대규모로 진행된 국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압도하는 장관을 연출하며, 국가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면서 국가 구성원을 윤리적으로 통제함.
 - 공연 참여자들이 스탠드에서 국기를 넘기는 절도 있고 일사불란한 움직임이나 관람객들이

19) “스펙터클,” 『영화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9577&cid=42617&categoryId=42617>> (검색일: 2019.2.28.)

일제히 기립하여 국기를 우러르는 행위는 모두 국가상징이 육체를 제어하고 윤리적으로 통제하는 의례의 일종

- 국기는 ‘우리’라는 집단 의식과 ‘조국’에 대한 애국적 관념을 효과적으로 집약함.
- 국기는 국가의 성화(聖化)로서, 국기를 게양하고 하기하는 일련의 의식은 성례(聖禮) 의미를 생성하고 표현

□ 〈빛나는 조국〉 공연 평가와 ‘우리 국가제일주의’ 의미

- 국가상징의 기본 요소인 국가, 국기는 스펙터클한 효과와 함께 표상됨.
- 예술성과 과학기술을 융합한 새로움은 〈아리랑〉의 전통을 계승하되 새로운 시대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빛나는 조국〉은 북한 내에서 “공화국의 국력과 정치사상적위력을 만방에 과시”하려는 김정은 의지의 발현으로 평가
-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체육축전이나 국경절기념행사에서 자기 국가와 민족의 역사·문화를 세계 앞에 보여주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 붓고 명성높은 해외 연출가를 초빙하는 나라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기념일을 예술행사로 경축하는 것은 “그것이 곧 나라의 얼굴이며 존엄과 국력의 과시”가 되는 의의로 강조²⁰⁾
- 이 공연을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과업으로 제시한 국력과 국가 위상의 제고, 민족과 역사의 전통으로 계승발전된 문화예술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를 창출함.
- 〈빛나는 조국〉은 인재들, 최첨단 기술력, 문화와 예술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짧은 제작 기간에도 성공적으로 창조 완성할 수 있었다는 자체 평가

20) “시대의 기념비적대결작과 더불어 불멸할 이야기,” 『로동신문』, 2018.10.31.

- 9.9절 국가의례에서 공연된 〈빛나는 조국〉은 국가상징들을 과시적으로 재현하면서 구성원들이 ‘국력’을 갖춘 국가의 ‘국민되기’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외부적으로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과시하여 보편적 국가성을 수용하도록 견인함.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화려한 볼거리와 기술력은 김정은의 리더십과 북한의 안녕을 내외로 과시하는 효과를 냄.
 - “국가의례에 있어서의 화려함과 통 큰 씩씩이는 왕의 신성성을 가늠하는 척도일 뿐만 아니라 왕국의 안녕을 가늠하는 척도”²¹⁾라는 기어츠의 논의를 빌려오면, 국경절의 대형 이벤트는 현재의 북한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을 시각적 스펙터클과 화려함으로 이미지화하고 과시
 -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정상성을 복원함으로써 체제를 안정화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함.

다.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의 국기 표상과 애국주의

□ 국기 표상으로 재조명되는 예술영화

- 2016년에 처음 상연된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는 2018년에 국가상징으로 새롭게 의미가 덧입혀지고 재평가됨.
 - 2016년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 최우수영화상과 장편예술영화 여배우연기상을 받은 작품²²⁾
 - 천리마의 고향이라는 강선에서 7명의 고아를 맡아 키워 김정은으로부터 ‘처녀어머니’로 불리게 된 20살 ‘장정화’를 모델로 한 영화²³⁾
 - 부모를 잃은 3남매를 장남이 군대에 나가 있어 보살필 수 없게 되자 이웃 언니인

21) 클리퍼드 기어츠, 김용진 역, 『극장국가 느가라』 (서울: 놀민, 2017), pp. 236~237.

22)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 폐막,” 『로동신문』, 2016.9.24.

23) “조선에서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처녀어머니》,” 『로동신문』, 2015.7.6.

‘리정화’가 돌보게 되면서 생기는 오해와 갈등, 그것의 해소 과정이 주요 스토리

- 초연 당시에는 ‘처녀어머니’의 형상을 통해 “새 세대 청년들의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를 예술적으로 펼쳐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로 주목받았으나,²⁴⁾ 2018년에는 영화에 시각적으로 표상된 ‘국기’ 중심으로 재조명됨.
 - “마감장면에서 정아를 비롯한 은정이 형제들이 화폭을 꼭 채우며 펴럭이는 우리의 공화국기발을 가장 긍지롭게,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환희에 넘쳐있는 모습은 우리 인민모두에게 내 조국의 귀중함과 위대함에 대하여 다시금 심장깊이 받아안게 한다”²⁵⁾고 평가
- 영화의 주요 맥락은 ‘공화국 창건일’을 맞아 국기를 게양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국기가 어떻게 개인과 집단,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상징이 되는지 보여주며 형성됨.

□ 영화 속 ‘국기’의 등장과 그 의미

-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에서는 ‘공화국창건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세부 형상을 창조함.
- 영화 속에서 국기는 다음의 세 장면에서 집중적으로 표상됨.
 - 첫째, 국가 창건일에 아이들의 부모가 지붕에 띄워놓은 국기
 - 둘째, 국가 창건일을 맞아 정아와 아이들이 지붕에 게양하는 국기
 - 셋째, 국가 창건일에 수학수재와 미래의 축구선수인 형제들의 꿈을 지켜주는 것이 처녀어머니인 정아의 꿈이라고 말하며 모두가 바라보는 국기
- 국기 표상은 ‘개인-집단/사회-국가/당’의 관계를 환유하면서,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국

24) “새로 나온 조선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 『로동신문』, 2016.9.3.

25) 박은경, “공화국기발세부가 떠올린 형상의 무게,” 『조선예술』, 2018.9, p. 20.

기의 의미를 확대함.

- 첫 번째 국기는 부모의 육친적 사랑이 있는 '가정' 환유
- 두 번째 국기는 리정아와 아이들이 집단으로 연대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환유
- 세 번째 국기는 부모와 사회, 개인과 집단을 감싸는 '당의 품' 환유

〈그림 3〉 〈우리 집 이야기〉의 국기 표상 세 가지



출처: 조선영화촬영소, 〈우리집이야기(2016)〉 (평양: 목란비디오, 2017).

- 국기는 개인과 집단을 애국의 감각으로 내면화하는 기제로 형상됨.

- 국기는 애국주의를 내포하는 동시에 국기/조국을 내면화한 주체의 정신과 마음, 행동, 자세까지 구속하는 장치로 기능함.
 -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물인 장녀 은정이 ‘조국’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국기를 계양하는 세 번의 장면을 통해 형상화
 - 스크린을 꽉 채우는 세 번째 국기는 개인과 집단을 구속하고 통제하는 국가 권력의 압도적 현현
 - 국기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 자세, 마음가짐을 통해 애국주의를 강화

V '우리 국가제일주의' 표상의 함의와 전망

□ 국가상징을 통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함의

- 국가상징은 국가를 브랜드화 하고, 타국과 구별되는 체계를 의미함.
 - 현재 북한은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한 집단의 결속력이 필요한 상황임.
국가상징은 김정은 시대의 국민 정체성을 재구축하여 정상 국가의 면모를 형성하는 기반이 됨.
 - 국가상징이 맥락화 되는 과정은 영웅서사의 스토리텔링과 유사함.
 - 국가상징을 선전하는 기사들은 역사적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과 현재 자부심의 징표가 되는 이유를 민족의 기상, 민족의 자랑, 민족의 슬기, 민족의 긍지와 연동하며 명확화
 - 국가상징 기사는 고대부터의 역사, 문화 생산물들, 현대사의 주인공인 수령들과 관련된 사연들을 교차하여 서술함으로써 '탄생-고난-시련극복-영웅적 승리'와 같은 영웅담의 구조를 전유
 - 국가상징의 영웅담 구조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를 이룩하자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
 - 국가상징이 담고 있는 영웅적 승리는 대북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룩한 성취들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징함.
 - 국가상징이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은 북한이 겪어온 제재와 봉쇄 조치 아래에서 겪은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동일시
- ### □ 국가상징은 국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문화적 기획물
- 국가상징은 일차적으로는 내부 구성원들을 향한 집단기억의 축적물이 되고, 다음으로는 대외 이

미지 구축과 관련됨.

- 국가상징은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서 세계무대에 서고 국제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획의 하나

○ 국가상징은 핵보유국으로서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 문화예술적으로 월등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지향을 반영함.

- 개인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고, 국가의 이름을 선양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개인의 애국심을 반영

○ 사회주의 정상국가로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다지는 첫걸음은 국가상징의 재귀임. 국가 브랜드 홍보는 자국의 이익을 증대하고, 국제무대에서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자국에 대한 우호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민족제일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전략적 사용

○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우리민족제일주의’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우리민족제일주의는 민족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이라는 민족주의
- 국가제일주의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우선하는 애국주의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 필요한 긍지와 자부심, 국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결부됨.

- 자력갱생이 지속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주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졌으며, 소속감은 약해진 상태임. 국가상징은 국가에 대한 결속력과 유대감을 높이는 기표로 작동

○ 민족제일주의가 아니라 국가제일주의를 호명함으로써 사회관계와 질서를 회복할 법치 기반을 다지고 사회주의 국가의 정상성을 회복하고자 함.

- 민족제일주의가 위기에 당면하여 집단의 정서적 연대와 결속을 다진다면, 국가제일주의는

법치주의와 행정적 공정성으로 위기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실천

-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시장화 경험이 심화되면서 민족주의 이념으로 집단을 결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성원들을 통합할 기제로 국가주의를 선택함.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불량국가가 아니라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창출하여 대중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견인함.
- 국가 귀속감의 제고는 북한 주민들의 체제 이탈을 막고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집단주의를 자연스럽게 내면화 하는 동기를 부여함.

□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지향하는 국가의 청사진

- ‘천하제일 강국’²⁶⁾과 같이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지향하는 국가의 청사진은 다음의 세 가지 위상과 관련됨.
 - 자강의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
 - 세계와 동등하게 경쟁하며 국가 지위 격상
 - 세계의 평판과 인정을 바탕으로 자국의 명예와 자존을 제고
- 국가상징 강조는 이전 시대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선대가 구축한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김정은 정치권력의 독자성을 과시하려는 징표임.
 - 북한 창건 시기의 국가상징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새로운 나라라는 인식을 갖도록 기대한 것과 대칭적 맥락²⁷⁾
 - 김정은 시대에 재문맥화 된 국가상징은 김정일 시대와 구별되는 국가 이미지의 쇄신과

2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념원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로동신문』, 2018.12.17.

27) 이승현, “김일성-김정일의 상징정치: 구호와 상징조형물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2호 (2012), p. 83.

관련

- 이 같은 징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기’를 통한 애국주의 함양과 ‘국기’의 시각적 재현

- 국가의례와 정치적 언술, 언론 매체에서 강조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국가상징을 매개한 공연이나 영화를 통해 정서적으로 고양되면서 도덕적 의무감으로 내면화됨.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국가성 회복을 통해 대북제재 문제, 국제사회에서의 외교문제, 더 나아가 국가 성장을 도모하려는 청사진에서 출발함.
 - 국가상징의 대두와 국가제일주의는 국가성을 재구축하여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
 - 정상국가 이미지는 주변국이나 국제 사회에서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위상을 제공
 - 국제적 위상의 제고는 대북제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발전 전략에도 도움이 되는 상수 역할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독자적 정치권력을 구축한 김정은의 계승의 완결성,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가인 북한 위상의 제고, 정상국가로서 외교무대에 서고자 하는 의도 등으로 읽을 수 있음.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정책적 전망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의 청사진이자 내부 구성원들을 국가의 절대성에 결속시켜 체제를 공고히 하는 프로젝트임.
 - 대북제재를 풀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벗어나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주의 문명국을 만들어 도약하고자 하는 김정은 체제의 프로젝트 성격
 - 북한 주민의 체제 이탈을 막고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자긍심을 주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의 일종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북한이 공공외교나 문화외교와 같이 국제교류의 장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지 알려주는 단초가 됨.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북한이 국가 간의 국제교류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할 것인지 ‘미리보기’하는 키워드가 됨.
 -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 국가로서 대등한 파트너십이 필요
 - 보편적 국가상징을 적극 활용하는 홍보 전략은 기존의 군사적·강압적 국가 이미지를 축소하고 사회주의 정상 국가의 온건성을 표출함으로써 상대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낼 초석으로 작동
-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민족 공조가 아니라 국가 간 ‘협력 파트너십’이 북한이 원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음.
 - ‘민족’은 남북한 대중을 호명하여 협력과 상생의 정서적 동의를 마련하는 기표로 작동하지만 이익을 전제하는 본격적인 교류 협력에서는 역효과와 가능성
 - 국가 대 국가의 교류 협력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남한이 과거에 북한에 보여주었던 ‘시혜적’ 태도는 북한이 추구하는 대등한 파트너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 필요

참고문헌

가. 논문

이승현. “김일성-김정일의 상징정치: 구호와 상징조형물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2호, 2012.

전영선. “북한의 아리랑 축제와 민족예술의 가능성 모색.” 『한국문학과 예술』. 제6집, 2010.

나. 단행본

베네딕트 앤더슨. 윤행숙 역. 『상상의 공동체』. 서울: 나남출판, 2002.

빅터 터너. 김익두·이기우 역. 『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민속원, 2014.

캐서린 벨. 류성민 역. 『의례의 이해』.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1989.

클리퍼드 기어츠. 김용진 역. 『극장국가 느가라』. 서울: 눌민, 2017.

다. 기타자료

국립국어원 <<https://opendict.korean.go.kr/>>.

『영화사전』 <<https://terms.naver.com/>>.

BBC Korea. 2018.9.10. <<https://www.bbc.com/>>.

라. 북한자료

『로동신문』.

『조선녀성』.

『조선예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철학, 사회정치학 연구』.

조선영화촬영소. <우리 집 이야기(2016)>. 평양: 목란비디오, 2017.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0,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 | | | |
|---|--|------|-----|
|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 | 소 속* | |
| 간 행 물* 받 을 주 소 |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 | |
| 연 락 처* | TEL | | 이메일 |
| 이메일 서비스 | 수신 () 수신거부 () | | |
| 회 원 구 분* |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 |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성 명 (인) | |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0,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KINU Insight 19-04

발 행 일 2019년 8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편 집 인 기획조정실 연구관리팀

홈 페이지 <http://www.kinu.or.kr>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 통일연구원, 2019